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

- 윤리적 환대를 향하여

홍창현 (예향교회 부목사)**

I. 들어가는 말

II. 존재론적 모험: 왜 레비나스인가

III. 타자와 주체: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의 관계성 분석

1.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3가지 요인
2.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의 관계성 유형
3. 레비나스 철학을 통한 비평
4. 타자화와 정치적 양극화

IV. 윤리적 환대를 향하여

1. 한국 교회의 환대와 레비나스
2. 레비나스의 환대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50.11>

* 이 논문은 2021년 3월 27일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 주저자, hongc@tcd.ie.

• ABSTRACT •

North Korean Defectors and Korean Protestant Churches: Towards an Ethical Hospitality

Rev., Hong, Chang-Hyun(Yeahyang Church)

This paper analyzes and critiqu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Korean Protestant churches through Emmanuel Levinas' philosophical lens. The representative five denominations are examined on their role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defectors. The article argues that the churches, regardless of denominations, perceive the defectors in a church-centered perspective which brings otherization and polarization of the defectors. The defectors' being and actions are captured into the dominant narrative of the churches and utilized for the sake of the churches. Levinas' philosophical idea 'hospitality' is suggested as a way to exile from the limitations of a church-centric attitude. Following Levinas' idea, the churches' hospitality becomes not only welcoming the defectors' subjectivity but also a political struggle to emancipate the defectors from the gaze of abhorrence and oppressed social structure of the South.

Key words: Emmanuel Levinas,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Protestant Churches, Otherization, Ethical Hospitality

I. 들어가는 말

한반도의 분단은 지리적 분단을 넘어 사람과 문화, 역사의 분단을 낳았다. 분단은 일회적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 남북한 주민 사이의 증오와 불신을 재생산하고 있다. 분단은 남한 사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념과 생각의 차이를 틀린 것 혹은 적으로 규정하는 ‘분단적 사고’를 강화한다. 이처럼 분단이 그어 놓은 ‘보이는 경계’와 ‘보이지 않는 경계’ 사이에서 이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인 북한이탈주민이 등장한다.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존재는 역설적이게도 여전히 한반도에 분단이 견고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분단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존재는 이념적 틀 안에서만 논의되거나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불우한 이웃’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실상이다. 또한 한국 교회와의 관계성 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자의든 타의든 탈북의 과정에서부터 남한 사회의 정착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¹⁾ 교회는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적 주체성, 즉 반공주의에 기초한 대북관, 통일 이해로 바라보며 이들의 타자성을 안보의 이름으로 남한 사회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여긴다. 더욱이 한국 교회는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적 주체의 동일성으로 포섭하려는 행동을 ‘북한 선교’라는 명분으로 강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남한 사회의 강력한 주체인 교회와 사회문화적/정치적 타자인 탈북자의 조우는 나와 다른 존재를 만나는 신비로운 사건이 되기보다 타자를 대상화하고 차별화하여 전제성으로 종속하는, 즉 타자에 대한 주체의 지배가 된다.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의 관계성 담론이 주로 선교신학 혹은 사회

1) 최승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교 단체의 역할과 과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신교 단체의 지원과 갈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9권 2호(2017), 167-68.

복지 차원의 수혜자-시혜자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이 둘의 만남을 기독교윤리 신학의 논의 안으로 끌어들여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의 관계성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주체 중심 신학을 발견하고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 타자 중심의 윤리적 관계로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이 둘의 관계성을 타자의 타자성을 통해 윤리적 주체, 윤리적 관계로 발전시키려 했던 임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철학적 관점을 토대로 분석 및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존재론적 모험: 왜 레비나스인가

유대인-프랑스 철학자인 레비나스는 자아론에 기초하는 서구 철학의 존재론에 한계를 인식하고 타자와의 관계성에 천착하여 새로운 철학적 지평을 넓힌 학자이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대상화하고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주체가 아닌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주체를 추구하였다. 그는 존재론이 아닌 제1철학으로서의 윤리를 주장하며 타자로부터 도래하는 윤리,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서구 전통 철학의 흐름에 대항하여 타자와의 만남을 강조하는 레비나스 사유의 과정을 일컬어 ‘존재론적 모험’(the ontological adventure) 이라고 한다.²⁾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이 발단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는 철학적 질문이다. 레비나스 철학이 탄생한 배경과 관련하여 후

2) Emmanuel Levinas, "Substitution," in *Basic Philosophical Writings*, eds. Adriaan Peperzak, Simon Critchley, and Robert Bernasconi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86-87.

설과 하이데거의 철학적 영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레비나스는 두 거장의 서구 철학적 전통에 질문을 던지며 그동안 주체에 밀려 조명받지 못한 타자를 새롭게 등장시킨다. 먼저, 레비나스는 후설의 현상학을 비판하며 ‘타자의 현상학’을 전개해 나간다. 특별히 후설의 지향성(intentionality) 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과학적 객관주의를 극복하고 자아 밖의 대상에 대해 나의 의식을 통해 지각됨을 강조한 후설의 철학적 통찰은 레비나스에게도 외재성에 관한 영감을 주었다.³⁾ 그러나 바깥에 대한 나의 지향성은 결국 타자를 나의 인식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게 만들어 일방적으로 동일자에 의해 규정된 존재로 전락시킨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표상적 지향성은 타자성을 동일성으로 환원시키게 만들고 다시 나 중심의 주관주의로 회귀하게 한다고 비판한다. 지향적 의식은 힘과 동화의 논리를 통해 타자의 타자성을 또 다른 나로만 보게 만드는 지배의 주체를 만들 뿐이라고 지적한다.⁴⁾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관해서도 비판하며 존재와 존재자에 대해 다른 이해를 펼친다. 레비나스 역시 하이데거의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존재가 존재자를 벗어나서 있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레비나스에게 존재는 존재자로부터 종속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즉 ‘존재자 없는 존재’(existing without existents)이다. 존재는 중립적으로 그저 있음(*il y a*), 즉 익명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자아의 동일성 사유 안으로 타자성을 귀속하려 했던 하이데거의 존재 질문에 대해 레비나스는 주체 중심의 존재론이 아닌 타자의 외재성, 타자의 다름에 귀 기울이며 책임적 존재로의 변화를

3) Emmanuel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trans. Alphonso Lingi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122-23.

4) Rudolf Bernet, "Levinas's critique of Husserl,"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Levinas*, eds. Simon Critchley and Robert Bernascon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94.

지향하는 형이상학적 욕망, 즉 제1철학으로서의 윤리를 전개한다.⁵⁾

둘째는 정치적 질문이다. 레비나스는 홀로코스트와 반유대주의를 직접 겪으면서 유대인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면에 유럽의 전체주의적 철학(totalitarian philosophy)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상적으로 나치에 동조한 하이데거의 모습을 통해 레비나스는 주체 중심의 서구 전통 철학이야말로 끊임없이 타자성을 제거하며 폭력을 재생산하는 이론적 기반임을 깨닫게 된다. 레비나스는 “전쟁에서 스스로 나타나는 존재의 얼굴은 서양 철학을 지배하는 전체성 개념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⁶⁾고 주장하며 전체성 개념에 반대하는 타자 중심의 철학을 통해 폭력을 제거할 수 있는 사상적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와의 관계성을 레비나스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 존재론 중심의 신학과 인식론에서 출발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교회의 관계는 주체의 동일성에 스스로 의문을 던질 수 없는 ‘표상적 사قم’에 불과하다. 이 구조 안에서는 언제든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의 폭력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근대적 의미의 관용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타자의 타자성을 통해 전체주의를 극복하려 했던 레비나스의 성찰은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에 새로운 윤리적 관계 형성의 길을 보여줄 수 있다.

III. 타자와 주체: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의 관계성 분석

한국 교회가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 긍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존재론적 구조 속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

5)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47.

6) 위의 책, x.

계 맺기를 하고 있다. 특별히 다양한 신학적, 정치적 이해 차이에 따라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 있는 한국 교회의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 역시 교단적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한국 개신교 교단 중 대표적인 5개 교단(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을 중심으로 이들이 북한이탈주민들과 어떠한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 분석하고 레비나스 철학을 토대로 비평하고자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3가지 요인

한국 교회가 북한이탈주민과 관계성을 형성할 때 크게 3가지 배경적 요인, 즉 선교 신학, 대북관, 통일/평화에 대한 이해에 따라 관계 범위와 행동 등을 설정한다.⁷⁾

첫째, 선교 신학이다. 선교 신학은 교회의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동력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회의 태도 역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한국 교회는 크게 복음주의 선교 신학과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으로 나뉜다. 주로 합동과 기성 두 교단은 북한이탈주민 선교를 통해 북한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거나 교회를 세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른 세 교단, 기장, 감리, 통합은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직접적인 복음 전파보다 통일 자체를 선교로 이해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다.

둘째, 대북관이다. 1950년대 한국 교회 안에서 친 공산주의 기관으로 인식되었던 WCC 가입 문제로 장로교 교단이 분리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반공주의에 기초한 대북관은 교회가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을 이해

7) 윤은주, 『한국교회와 북한인권운동: 선교패러다임과 대북관 분석을 중심으로』(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82-83.

하기 위한 신앙적 렌즈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이념적 렌즈가 되었다. 기장은 '88 선언'을 통해 교회의 반공주의적 태도에 대해 비판하며 회개를 촉구하였다. 기감과 통합 교단 안에서는 반공주의를 반대한 88 선언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했지만 2000년대 남북 관계 개선의 분위기 속에서 반공주의를 극복한 북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⁸⁾ 합동과 기성 역시 교단의 북한 선교 정책에 있어 반공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북관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반공의 기치를 내세운 흡수 통일적 대북관의 입장에서 선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통일/평화에 대한 이해이다. 기장은 크게 세 가지, 즉 7.4 남북공동성명의 3대 통일 원칙(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88 선언, 에큐메니칼 신학의 정의와 평화의 이해 속에서 남북한 통일과 평화를 바라본다. 기감 역시 그들의 교단 통일정책이 7.4 남북공동성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NCKK의 회년 운동의 가치인 분단 구조로부터의 해방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생각한다.⁹⁾ 통합은 6.15 공동선언을 토대로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식하여 이 방향을 통일 지향으로 삼는다”고 고백한다.¹⁰⁾ 합동과 기성은 분단 이전 북한 지역의 교단 교회를 재건하는 사역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에서 다시 북한으로 보낼 선교사를 양성하는 사역을 통해 북한 복음화를 기반으로 한 통일과 평화를 지향한다. 합동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단의 통일정책 기초의 변화를 이룬다. ‘2018 예정합동 베를린 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사회적 실천을 통한 성육신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주장한다.¹¹⁾

8) 권혁률, “남북화해를 위한 교단별 선교와 정책,” 『기독교사상』 제44권 6호(2000), 121, 130.

9) 위의 논문, 126.

1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9회 총회 회의록』(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389.

2.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의 관계성 유형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의 관계성을 유형화 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물론 두 집단 간의 관계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 교회가 교단보다 개교회 중심으로 선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유형화 분석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이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교회의 관계성에 큰 흐름과 차이를 파악하고 유형별 문제점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1) A 유형: 평화와 통일 운동에 집중하는 유형

주로 기장과 같은 진보적인 교단, 단체가 속한 유형이다. A 유형은 다른 교단들과 달리 북한 선교나 북한이탈주민을 이용한 복음 전파에 관심을 두기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며, 특별히 분단이 야기하는 구조적 폐해, 폭력 문제에 집중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은 A 유형의 평화 통일 정책과 담론에 있어 주요한 주제라기보다 부차적인 혹은 교단의 필요에 의해서만 언급된다. 또한 북한 정부 혹은 기관과의 소통에 있어 교회나 선교사를 통하기보다 북한의 공식 기독교 기관으로써 조선그리스도연맹(조그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류한다. 이렇다 보니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조그연과의 관계 안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2) B 유형: 투 트랙 전략 유형

기장과 통합 교단이 속한 유형으로 평화 통일과 북한 선교라는 두 가지

11) '예장 합동 베를린통일선언문 발표', 『기독교헤럴드』 2018년 5월 19일자, 제4면.

주제 모두를 아우르는 ‘투 트랙 전략(Two-track strategy)’을 가진다. 신학적으로는 에큐메니칼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수와 진보적 시각이 혼합되어있는 특징을 지닌다.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 모두를 활용하여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더욱이 두 교단의 주요 교회들이 월남한 기독교인들에 의해 세워진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느슨한 반공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본다. 기감과 통합 교단 모두 북한이탈주민을 교회의 선교 목적으로만 이용했던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며 그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한다.¹²⁾ 그러나 여전히 교회 중심적 시각에서 그들을 독립된 주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반자로 여기기보다 통일과 선교를 위한 도구로써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부여한다.

3) C 유형: 선교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유형

합동 교단이 속한 유형으로 복음주의적 신학과 보수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다. 북한의 경제난이 극심해진 1990년대 중반부터 한기총을 중심으로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북중 접경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 탈북 루트를 제공하고 남한에 입국할 때까지 개종의 대상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한다. 합동 교단은 2000년대에 들어서는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선교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물질적 지원에 열정을 내었다. 교단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병원, 학교, 빵 공장 등을 북한에 세웠고, 북한 출신 사역자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접촉을 강화하였다.¹³⁾

1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 회의록』(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6), 650.

13) 윤은주, 『한국교회와 북한인권운동』, 170-71.

4) D 유형: 북한교회 재건 유형

기성 교단은 북한 선교 정책에 있어 분단 이전에 북한 지역에 있었던 기성 교단의 교회를 찾아 재건하는 일을 핵심으로 삼는다. 기성은 타 교단에 비해 조그연과의 교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독자적으로 선교사들을 통해 지하교회나 가정교회와의 접촉을 추구한다. 2019년 기성 교단 총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선교의 후보자들”이라고 언급할 만큼 주로 선교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경향이 강하다.¹⁴⁾ PN4N, 사랑나루 선교회 등 기성 교단 중심의 북한 선교 단체에서 ‘뒷문 선교’ 전략을 강조하며 북한이탈주민을 제3국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일을 진행하기도 한다. 기성 교단은 교단의 선교 정책 달성을 위한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를 맺고 있다.

3. 레비나스 철학을 통한 비평

1) A 유형: 얼굴과 책임

레비나스에게 주체의 주체성은 타자와의 만남, 특별히 타자의 얼굴을 통해 다가오는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얼굴은 동일자의 모습 이 아니라 개별자적 특징을 지닌 존재로 나타난다. 타자의 얼굴과의 대면은 주체의 이해와 인식을 넘어 무한(infinity)한 존재로서 나의 자유에 앞서서, ‘신적 현현’(epiphany)의 과정이다. 레비나스에게 타자는 또 다른 자아가 아닌 존재 그 자체이며 타자의 타자성과 다양성은 자아-중심의 인식 및 관념 안으로 환원될 수 없다.¹⁵⁾ 동일자의 동일성으로 포섭하려는 주체의 위협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타자의 얼굴을 통한 만남이 필요하

14) 조기호, “북한선교특별위원회 사역과 방향,” 『활천사』 제782권 1호(2019), 66-67.

15)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193-96.

며 이는 주체를 책임 있는 윤리적 주체로 이끈다. 특별히 얼굴의 현현은 고아, 과부 등 연약한 존재들의 호소, 즉 “나를 죽이지 말라”는 요청으로 나타난다.¹⁶⁾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의 얼굴을 지닌 타자로서 나(교회)에게 말을 걸어온다. 그러나 기장은 평화와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 안에서만 북한이탈주민들과 피상적 관계를 맺고 있다. 기장은 자신들의 교단적 입장과 태도에 따라 관심 밖으로 밀려난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대면 기회를 축소함으로써 스스로 윤리적 주체로의 변화를 이룰 가능성을 놓치게 되었다. 레비나스는 진리와 정의는 타자와 주체가 관계를 형성할 때 온다고 보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교단의 선교 정책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얼굴이 등장할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책임적 응답이 요청된다.

2) B 유형: 말함(Saying)과 말해진 것(said)

타자의 얼굴에 대한 주체의 응답은 단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책임의 형태를 가지는 의사소통으로 나타난다. 레비나스는 책임으로써 타자와의 소통은 “진실의 현상이나 정보의 형태로 축소되지 않는다”¹⁷⁾고 주장하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먼저 ‘말함(Saying)은 ‘존재와 다른 것’(otherwise than being), 즉 무한한 타자와의 만남에 자신을 노출하고 다가가는 행동이다. 반면에 ‘말해진 것’(said)은 타자성이 주체의 이해 범주 안으로 환원되어 대상화된 의미의 진리 체계로 인식된 상태를 말한다. 레비나스는 주체에 의해 타자에 대해 ‘말해진 것’을 주장하는 존재론적 구조를 타자에 대한 주체의 ‘인식론적 욕망’(epistemological de-

16) 위의 책, 197-200.

17) Emmanuel Levinas,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2000), 48.

sire)이라 비판한다. 다시 말해, 인식론적 욕망은 타자의 다름을 자기 인식의 방식으로 억압하는 ‘동일화의 폭력’으로 결국 타자를 자기의 또 다른 자아로 확장하려는 자기 중심적 욕망이다. 레비나스는 ‘말해진 것 없는 말함(the Saying without the said)을 통해 타자의 타자성, 즉 다름에 주체성을 노출 시키는 윤리적 존재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절대적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주체의 수동적 체험이야말로 서구 철학의 존재론적 한계가 낳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주장한다.

B 유형은 북한이탈주민의 타자성에 책임적 응답을 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여전히 말해진 것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교회-중심의 인식 확장의 대상으로 여기는 욕망이 서로 부딪히는 ‘자기 충돌’(self-collision)을 경험한다. B 유형이 지향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언이나 신학적 기대와는 달리 교회 현장에서는 이들을 활용하여 교회의 논리를 강화하려는 북한 선교적 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말함의 실천으로써 교회-중심의 주체성을 스스로 북한이탈주민의 타자성과 다름에 노출하여 윤리적 주체로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여전히 말해진 것으로써 교회의 자기 동일성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사이먼 크리츨리는 “말함은 윤리적이고 말해진 것은 존재론적이다” 라고 주장한다.¹⁸⁾ 교회의 주체성 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흡수하려는 말해진 것의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 타자 중심의 윤리적 전환이 요청 된다.

3) C 유형: 지향성과 욕망

무엇에 관한 의식으로써 후설의 지향성(intentionality) 개념은 자아와 바깥의 대상과의 관계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주체의 의식으로부터 시

18) Simon Critchley, “Introduction,”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Levinas*, eds. Simon Critchley and Robert Bernascon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17.

작하여 지향하는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후설 철학에 대한 레비나스의 비판에서도 언급했듯이, 바깥에 대한 객관화를 추구하는 주체의 지향적 행위가 여전히 타자를 주체의 의식 안에서만 이해하려 한다는 점에서 주관주의로의 회귀이다. 레비나스에게 후설의 지향성은 타자와 주체의 만남이 아니라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시켜 또 다른 자아와 만나는, 즉 자아(ego)와 다른 자아(alter ego)와의 만남일 뿐이다.¹⁹⁾

C 유형에 속하는 합동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은 레비나스가 비판했던 후설의 지향성 개념과 맥을 같이한다. 합동은 바깥의 대상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을 교회의 동일성 영역으로 포획하는 관계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북한 선교라는 교회 주체성의 인식 틀로써만 그들의 정체성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선교-중심의 지향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교회와의 관계성 안에서 특정 집단으로 범주화(categorized)하고 전체화(totalized) 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다양성은 소멸된다. 더욱이, 레비나스에게 지향성은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라고 주장한 점을 고려해 볼 때, C 유형은 타자와 만남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 내는 '존재론적 욕망'을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욕망의 관계성 안에 책임적 주체로의 윤리적 변화나 타자의 호소는 전달될 수 없으며 주체의 강력한 힘으로 통제되는 일방향적 혹은 위계적 구조가 고착된다.

19) Colin Davis, *Levinas - An Introduc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6), 27-29.

4) D 유형: 대속

기성 교단은 북한 지역에 교회를 재건하는 선교 정책에 몰두하느라 다른 교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화 운동, 대북 지원,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 공적인 기여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D 유형의 교회들은 주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에 대해 논하기보다 개인 구원과 전도에 치중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주체의 주체성을 타자에 대한 책임성에서 발견하는 레비나스의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성 교단의 모습은 ‘교회 됨’의 정체성을 교회의 책임적 역할에서 찾고 있지 않다. 레비나스는 책임적 주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속적 주체’를 강조한다.²⁰⁾ 타인의 얼굴을 통해 들려오는 호소에 대한 대답으로써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포로(hostage)의 경험, 즉 나에게서 벗어나는 타율적 자아에 이른다. 레비나스는 나로부터의 탈출에서 정의가 나타난다고 믿는다. 연약한 얼굴로 현현하는 타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수동적 주체, 더 나아가 상호 대칭을 넘은 타자-중심의 비대칭적 관계(asymmetrical relation)에서 타자의 고통에 응답할 능력(respons-ability), 즉 책임이 나온다고 주장한다.²¹⁾ 대속적 주체로서 한국 교회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화해와 평화, 용서의 가치로 분단의 아픔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4. 타자화와 정치적 양극화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볼 때, 교단의 신학적 차이와 정치적 입장에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의 관계성은 자아-중심성을 강조하는 서

20) Levinas,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164.

21)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3(2015), 193-95.

구 철학의 존재론적 구조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반도 이슈와 관련한 교단의 거대담론 중심의 정책과 북한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invisible being)가 되기도 하고 교회의 자기 충돌적 모습에 의해 배제와 동화의 경험을 동시에 겪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선교를 위해 교회가 제공하는 경제적 수혜자가 되기도 하면서 교회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교회-중심의 존재론적 관계성 안에서는 레비나스가 말하는 무한한 타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얼굴, 현현은 나타날 수 없다. 타자의 다름을 통해 구성되는 윤리적 주체, 타자를 위한 책임과 대속의 신비는 일어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와의 교회-중심적 관계성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귀결된다.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타자화와 타자화된 북한이탈주민을 이용한 정치적 양극화의 가속이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타자화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로 종교적 전환(religious conversion)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의 대부분의 과정에서 한국 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갖는다. 먼저 남한 사회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으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선교사와의 접촉을 시도한다. 하나원에서의 계속되는 심문과 교육 과정에서 교회의 정서적 지원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후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의 북한이탈주민의 접촉은 개종을 통한 기독교인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²²⁾

둘째로 이념적 전환(ideological conversion)이다. 한국 교회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종교적 전환과 더불어 공산주의에 대항할 ‘하나님의 군사’가

22) Jin-Heon Jung, "Refugee and religious narratives: The conversion of North Koreans from refugees to God's warriors," in *Building Noah's Ark for Migrants, Refugees, and Religious Communities*, eds. A. Horstmann and J. H. Jung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5), 78-79.

될 것을 요구한다.²³⁾ 교회의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 담당수가 그들의 모국인 북한에서 형성해온 사회문화적 가치, 이념적 차이를 악으로 규정하며 공산주의의 한계를 알리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마지막으로 사회정치적 전환(socio-political conversion)으로 이어져 북한에 대한 어떠한 긍정을 할 수 없는 남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검열을 통해 남한적 가치를 수용하게 만든다. 탈북의 순수성과 이념적 전향을 남한 사회가 원하는 사회정치적 정체성으로 증명해야 한다.²⁴⁾ 분단의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우리-그들’의 이중 시선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고 있는 다층적 정체성과 개별자로서의 주체성은 무시된다. 그들은 그저 남한적 자아로 환원되어야만 하는 정치화된 단일적 집단이 되어 버린다.

이렇게 타자화된 북한이탈주민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전히 한국 교회의 이념적 뿌리로 남아있는 반공주의에 기반한 정치화된 신학을 통해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하는 도구가 된다. 주로 보수적 신학과 정치적 입장을 가진 교회들을 통해 두 가지 방식으로 양극화 과정이 전개 된다.

먼저, 공적인 간증을 통해서이다. 교회들은 예배나 기독교 집회, 방송에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 북한의 실상, 특별히 인권 문제 제기를 통한 북한 정권의 잔인성을 그들의 입을 통해 증명하기를 원한다. 역설적이게도 간증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정치적 생존과 경제적 보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환 가치’로써 작용하며 교회 공동체가 듣고 싶어 하는 필요를 파악하여 그들의 경험을 정치적/종교적 내러티브로 엮어 풀어낸다.²⁵⁾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상황을 악

23) 위의 책, 84-86.

24) Jennifer Hough and Markus Bell, “North Koreans’ public narratives and conditional inclusion in South Korea,” *Critical Asian Studies* 52-2(2020), 173-75.

25) 이지성, “한국 교회의 북한이탈주민인식 전환에 대한 모색 - ‘공감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5(2019), 110-11.

용해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즉, 교회의 ‘북한이탈주민 스토리텔링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혹은 교회의 요구로 북한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²⁶⁾

다른 하나는 대북 풍선 보내기를 통해서이다. 선교단체와 보수적 교회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남한 소식 전단지, 성경, 라디오 세트, USB 등을 담은 풍선을 북으로 날려 보내는 일을 한다. 이러한 대북 풍선 보내기는 지정학적 관계 안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의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²⁷⁾ 북한 선교사로 불리는 대북풍선단의 이민복 대표는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은 막힌 눈과 귀를 열어 주는 순수하고 원초적인 인권운동이다. 무종교의 땅에 종교성을 전하는 순수한 선교 운동”이라고 주장한다.²⁸⁾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대북 풍선 날리기를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걸림돌이 되는 남북 갈등과 남남 갈등을 초래한다.

IV. 윤리적 환대를 향하여

교회-중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타자화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레비나스의 환대 철학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레비나스에게

26) Jin-Heon Jung, *Migration and Religion in East Asia: North Korean Migrants' Evangelical Encounter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5), 91.

27) Christine Hong, “Manufacturing dissidence: Arts and letters of North Korea’s second culture,” *Positions: East Asia cultures critique* 23-4(2015), 760.

28)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선교사 “폐쇄된 북한 개방 위해 필요”, 『국민일보』 2014년 10월 28일자, 제26면.

환대는 주체가 타자의 타자성을 환영함으로써 주체의 주체됨을 발견하는 인식론적 전환의 과정이다. 그의 책 『전체성과 무한』(Totality and Infinity)에서 “타자를 환영하는 것으로서, 환대(hospitality)로서의 주체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 가운데서 무한의 이념이 완성에 이른다”고 말한다.²⁹⁾ 레비나스는 타자는 무한한(infinity) 존재이며 그 무한의 흔적은 일종의 계시로서 타자 얼굴의 현현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주체의 노력이 나 인식 안으로 환원되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에 앞서는 타자-중심의 비대칭적, 비상호적 관계성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타자의 호소에 스스로 인질이 될 때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윤리적 주체와 책임이 나타난다. 타자 윤리의 핵심에서 발생하는 레비나스의 환대는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제국주의적 선교 방식의 동일성 철학이 야기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찰을 제공한다.

1. 한국 교회의 환대와 레비나스

레비나스의 환대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 교회가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 안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비나스 철학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의 환대는 크게 3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는 신앙-중심의 환대이다. 교회의 북한이탈주민 환대는 주로 교회 내 예배나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진다. 북한이탈주민은 교회와의 암묵적인 상호 계약을 통해 신앙생활을 조건으로 환대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다. 더욱이 이들은 교회 내 일반 예배나 성도들의 모임 속에 속하지 않고 북한 선교부나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부서, 예배를 통해 교회의 중심부와 별개로 떨어져 존재한다. 즉 손님인 북한이탈주민은 주인인 교회가 정해둔 범위와 공간, 행동반경 안에서만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

29)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27.

도 언제든 주인이 정해둔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요청을 거부할 때는 환대의 공간에서 쫓겨날 수 있다.³⁰⁾ 레비나스는 이러한 환대를 ‘관용’(tolerance)이라 부르며 전형적인 강한 주인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일방향적 환대, 즉 조건적 환대로 이해한다.

둘째는 사회복지-중심의 환대이다. 정부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한국 교회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은 실제적인 그들의 삶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선교적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환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레비나스에게 환대는 “타자에 의해 동일성에 질문을 제기하는 부르심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반해, 사회복지-중심의 환대는 북한이탈주민의 다름을 자본주의적 논리로 흡수해 버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한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³¹⁾ 교회-중심의 경제적 접근은 북한이탈주민을 교회의 자본주의적 힘에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수혜자로 만든다.

셋째는 전도-중심의 환대이다. 주로 보수적인 정치 입장과 신학 노선을 견지하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환대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 교회 재건과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써만 환영하는 태도이다. 이는 데리다가 이야기한 환대와 적대가 섞여 있는 ‘적-환대’(hostipaltiy)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적으로 언제든 적 혹은 간첩으로 바뀔 수 있는 ‘의심스러운 낯선 이방인’으로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환대 역시 적대로 바뀔 수 있는 이중적, 위계적 구조 속에 존재한다. 레비나스에게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환대는 근본적으로 평화를 지향한다.³²⁾ 그러나 교회의

30) Giovanna Borradori,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Dialogues with Jürgen Habermas and Jacques Derrida*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126-27.

31)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43.

32) 위의 책, 71.

전체주의적 논리에 의해 타자의 다름이 무시되는 환대는 물리적/사회문화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레비나스 철학으로 분석한 한국 교회의 환대는 자아의 인식으로만 정의된 타자 이해 속에서 환대를 받을 수 있는 타자성을 규정하고, 독특한 그들의 정체성과 생각을 지배와 정복의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동일화하는 환대이다. 환대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우월주의, 정복주의는 타자의 타자성을 착취하고 통제하는 식민주의적 선교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레비나스의 환대

북한이탈주민과 교회의 관계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레비나스의 철학적 제안은 주체-중심성 구조를 타자-중심성으로 바꾸는 일이다. 레비나스의 환대는 주체의 상실로 이어지는 해체주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체의 주체성을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세우는, 새로운 윤리적 주체의 발견이다. 레비나스에게 환대는 단지 친절이나 자비를 의미하기보다 타자의 타자성에 자신을 노출 시켜 주체가 가지고 있던 동일성에 문제를 제기하여 거부할 수 없는 타자의 호소에 책임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레비나스의 환대는 주체의 인식론적인 해방이며 동시에 정치적인 실천 운동이다.

레비나스의 환대는 일반적인 환대의 개념처럼 주체(주인)의 의지나 노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나 근원적으로는 주체를 움직이게 하는 무한한 타자의 등장, 타자가 주체에게 말을 건넌에서부터 시작한다.³³⁾ 환대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주인-손님의 도식을 뒤엎어 타자를 자아의 자유와 의지에 앞서는 존재로 여긴다. 그래서 레비나스의 환대에서는

33) Emmanuel Levinas, *Proper Names*, trans. Michael B. Smith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8-12.

주인의 의도나 목적에 의한 조건적인 환대나 선별적 환대는 일어날 수 없다. 오히려 주체는 타자의 얼굴 앞에 타자를 환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주체의 자기 복종, 자기 포기에 의해 환대의 공간을 만든다. 주체의 주체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동일자의 환대와는 달리, 주체는 타자와의 사귄 속에서 자신의 자유와 즐거움, 향유에 대한 의미를 자신이 아닌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발견한다. 레비나스에게 타자의 얼굴로 나타나는 존재를 환영하는 것은 자아의 소유와 힘을 타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 자신을 두는 “사회성에 관한 윤리적 사건”이 된다.³⁴⁾ 환대의 윤리적 사건을 통해 계시 되는 타자의 현현이 주체가 타자를 초대하여 환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자가 주체를 주체-중심성의 에고이즘(egoism)으로부터의 탈출하도록 돕는 ‘초월로의 초대’가 된다. 레비나스의 환대에서는 주인-손님/주체-타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며 여기에서 타자의 호소에 주체의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관대함’(generosity)이 발생한다. 특별히 환대의 기초가 되는 관대함은 윤리적 운동으로 이어져 “주체로 하여금 빈손으로 타자에게 다가가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진다.³⁵⁾

레비나스의 환대가 단순히 주체-타자의 개인적 관계를 넘어 사회적 관계의 윤리적 사건일 때, 환대는 적극적인 공적 실천이 된다. 구체적으로, 타자의 타자성을 환영하는 것은 타자의 다름이 사회정치적 맥락 안에서 도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타자성을 억압하는 인식론적, 사회 구조적 변화를 위한 투쟁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환대는 우리 사회에 여러 이름으로 존재하는 타자에 대한 전체주의적 시도 — 예를 들어, 차별과 증오, 배제와 동화 등 — 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적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운동으로

34)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207.

35) 위의 책, 50.

이어질 수 있다. 한국 교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환대 역시 그들의 타자성에서부터 기인하는 책임적 응답을 대사회적 책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마주하는 억압과 존재론적 폭력을 유발하는 정책,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일에 교회의 역량을 모을 수 있다. 여러 경계를 넘나들며 형성해온 그들의 다층적 정체성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운동 차원으로 재해석하여 환대의 지평을 넓히는 윤리적 실천이 된다.

V. 나가는 말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교회의 관계성 속에 존재론적 전체주의의 시각, 신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비판하며 레비나스가 제안하는 윤리적 관계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윤리적 관계는 타자의 타자성을 통해 주체의 주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는 타자를 환대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다. 레비나스의 환대는 근대적 의미의 관용이나 단순히 자비를 베푸는 차원을 넘어 타자의 고통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책임과 대속의 주체로 변화되는 급진적인 윤리적 실천이다. 주인-손님의 경계가 무너진 환대의 역동성 안에서 주체와 타자의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며 이는 타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정의 운동으로 이어진다.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의 윤리가 철학적인 이해로는 가능하나 실제 현장에서, 특별히 복잡한 사회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이해로 얽혀 있는 북한이탈주민 이슈 안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그 의미가 구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실천적 고민이 존재한다. 레비나스 철학이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기보다 교회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타자와 만남을 갖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체성에는 아무런 균열이 일어나지 않은 채 동일성의 논리

로 이들을 통제하고 환원하려 했던 모습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 교회가 환대의 이름으로 오히려 배제와 억압을 하고 있다는 자아 성찰을 통해서 교회의 인식 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레비나스 철학이 주는 도전을 기독교윤리 신학으로 풀어낼 때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의 환대는 개인적 차원의 협소한 의미를 넘어 온 인류를 향한 비대칭적, 대속적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 공동체적 책임과 연대로 확대된다. 성육신을 통해 나타난 예수의 타자-되기(becoming-the Other)의 윤리적 주체성은 교회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책임적 응답을 할 수 있는 윤리적 자아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윤리적 주체로 변화된 교회는 타자 중심의 환대를 통해 현실 정치에서 새로운 환대의 공간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혁물. “남북화해를 위한 교단별 선교와 정책.” 『기독교사상』 제44권 6호(2000), 118-38.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9회 총회 회의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_____.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 회의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6.
-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3(2015), 177-201.
- 윤은주. 『한국교회와 북한인권운동: 선교패러다임과 대북관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 이지성. “한국 교회의 북한이탈주민인식 전환에 대한 모색 - ‘공감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5(2019), 95-122.
- 조기호. “북한선교특별위원회 사역과 방향.” 『활천사』 제782권 1호(2019), 64-67.
- 최승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교 단체의 역할과 과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신교 단체의 지원과 갈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9권 2호(2017), 153-98.
-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선교사, “폐쇄된 북한 개방 위해 필요”’. 국민일보, 2014년 10월 28일자 기사.
- ‘예장 합동 베를린통일선언문 발표’. 기독교헤럴드, 2018년 5월 19일자 기사.
- Bernet, Rudolf. “Levinas’s critique of Husserl.”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Levinas*, edited by Simon Critchley and Robert Bernascon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Borradori, Giovanna.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Dialogues with Jürgen Habermas and Jacques Derrida*.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 Critchley, Simon. “Introduction.”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Levinas*, edited by Simon Critchley and Robert Bernascon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Davis, Colin, *Levinas - An Introduc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6.
- Hong, Christine. "Manufacturing dissidence: Arts and letters of North Korea's second culture." *Positions: East Asia cultures critique* 23-4(2015), 743-84.
- Houhg, Jennifer & Markus Bell. "North Koreans' public narratives and conditional inclusion in South Korea." *Critical Asian Studies* 52-2(2020), 161-81.
- Jung, Jin-Heon, *Migration and Religion in East Asia: North Korean Migrants' Evangelical Encounter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5.
- _____. "Refugee and religious narratives: The conversion of North Koreans from refugees to God's warriors." In *Building Noah's Ark for Migrants, Refugees, and Religious Communities*, edited by A. Horstmann and J. H. Jung.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5.
- Levinas, Emmanuel, *Proper Names*. Translated by Michael B. Smith.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lated by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2000.
- _____. "Substitution." In *Basic Philosophical Writings*, edited by Adriaan Peperzak, Simon Critchley, and Robert Bernasconi.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 _____. *Totality and Infinity*. Translated by Alphonso Lingi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논문투고일: 2021년 6월 30일

심사개시일: 2021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04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임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철학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개신교 교회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비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5개 개신교 교단을 선정하여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을 조사한다. 본 연구는 교단과 상관없이 한국 교회가 교회-중심적 관점으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탈북민들에 대한 타자화,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한다고 밝힌다. 이러한 교회-중심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레비나스의 '환대' 개념을 제안한다. 타자-중심적 관계를 지향하는 레비나스의 환대는 다름과 타자성을 환영하는 윤리적 관계를 형성하며 이는 타자의 호소에 응답하는 책임으로 나타난다. 레비나스의 환대 개념을 통해 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성을 환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의 혐오와 억압의 시선, 구조로부터 이들을 해방시키는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주제어: 임마누엘 레비나스, 북한이탈주민, 한국 교회, 타자화, 윤리적 환대
